

오공아, 넌 왜 돌맹이에서 태어났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② 돌원숭이 태어나다

‘꽃 열매 산 (花果山)이라고 아시는지? 하늘 땅이 처음 나던 아득한 옛날, 동승신주(東勝神洲) 바닷가의 오래국(傲來國), 뭉 거기가 어디냐? 그대 집 싱크대 밑에 있는 나라라든가? 하여간 거기에 있는 화괴산, 천하의 명산이래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령스런 바위 하나 돌레는 일년의 날수에 맞게 세(3)길 여섯(6)자 다섯(5)치, 높이는 24절기에 맞는 두길 내자... 기타 등등. 이상하고 신기한 구석이 한 돌이 아닌 이상한 바위... 그 바위가 오랜 동안 천지의 정기를 받아 알 하나를 짚단 말씀이야.

그 알이 부화되어 한 마리의 돌 원숭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 원숭이가 뒷날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손오공. 그렇지만 아직은 평범한 돌 원숭이지, 아니 꼭 평범하지만은 않아... 날 때 눈에서 금빛 광채가 하늘까지 뻗어 옥황상제님을 놀래켰다 하나.

허지만 그 광채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춰지고 그냥 평범하게 원숭이 무리에 끼어서 원숭이 같아지면서 살게 되었지. 원숭이 같지 않은 이 돌 원숭이, 사람답은 이 돌 원숭이, 앞날이 어찌 될지 점 한번 쳐 볼까?

점 칠 필요 없는데, 오승은 이 지었다는 서유기에 뒷이야기 다 나오니까 궁금하면 읽어 보셔. 그게 귀찮으면 우리 이야기 계속 들으면 되지. 그건 더 귀찮잖아? 어이구, 그대 같은 사람을 국제화시대의 언어로 'Unguerable' 이라구 하는 거 알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의 뿌리, 그대 마음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나 꼭 참고 들어보시게! 모습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것은 돌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네!

어머세요? 후 <서유기>를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신평자로 읽어 보았습니다. 좀 청승 맞다고 흥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수씩 읊조리고 가겠습니다. 흠, 오늘은 손오공의 출생 대목입니다. 우선 탄생 축하 노래부터 불러줄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부르고 보니 축하 노래가 아니구나. 전에 학생들이 이 노래를 생일 축하곡으로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을 보고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이 무심코 나오고 말았습니다. 축하 노래라고 하기는 좀 염세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생겨났을까를 묻는 것이 재미있지 않아요? 이때백은 “하늘이 나라는 존재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 데가 있으리라(天生我才必有用)”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뒤편에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큰 갈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내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 이죠. 옛날에는 성인이나 위인급에만 탄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모두 탄생이라고 통칭되었더군요. 아무튼 출생이든 탄생이든,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로 태어남이든 이 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은 없겠죠? “없던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없던 존재가 있게 된다’는 말을 좀 씹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없던 것이 갑자기 있게 되는 것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신의 창조 이야기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모든 있는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 밖에 없어요. 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란 속에 있던 어떤 가능성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뿐이죠. 섭씨 100도의 끓는 물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100도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열해야만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도 없던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제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어요.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좀 썰렁한 이야기지만 한번 또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할 각오를 하고 풀어 놓아 보죠.

이미 작고한, 정말 신화시대의 코미디언 구봉서씨가 철학교수로 나왔어요. 강의 첫 시간, 강단에 서서 칠판에 ‘철학’ 하고 쓰더니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 아는지?”하고 묻더군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면서도 “잘 모르는데요”라고 말하자, 구봉서 교수 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철학을 가르쳐!” 하고 휘 나가 버렸어요.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학생들은 전번에 황당하게 당한 기억이 있어 “예, 언니 다!”고 했죠. 그러자 “다 아는데 뭘 가르쳐!”라고 나갔죠.

세 번째 시간, 똑같은 질문에 이제 학생들이 작전을 짜곤 몇 학생은 안다고 하고 몇 학생은 모른다고

無에서 有로... 돌에서 태어난 손오공

오래 천지 정기 받은 비범한 존재

어디서 비롯되지 모르는 마음과 유사

불교의 '의마심원' 비유 연상돼

손오공은 원숭이 아닌 '나의 마음'

마음찾고 불경찾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했죠. 그러자 구봉서 교수,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줘!” 하곤 바림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 썰렁했나요? 제가 썰렁하던 소리 들을 각오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안다’ ‘모른다’는 문제도 간단히 풀이면 ‘있음’과 ‘없음’의 문제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되면 없던 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인가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인가요? 어려운 한자로 말해 ‘무(無)’에서 ‘유(有)’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는 힘든 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든가 플라톤의 상기설 같은 것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요. 알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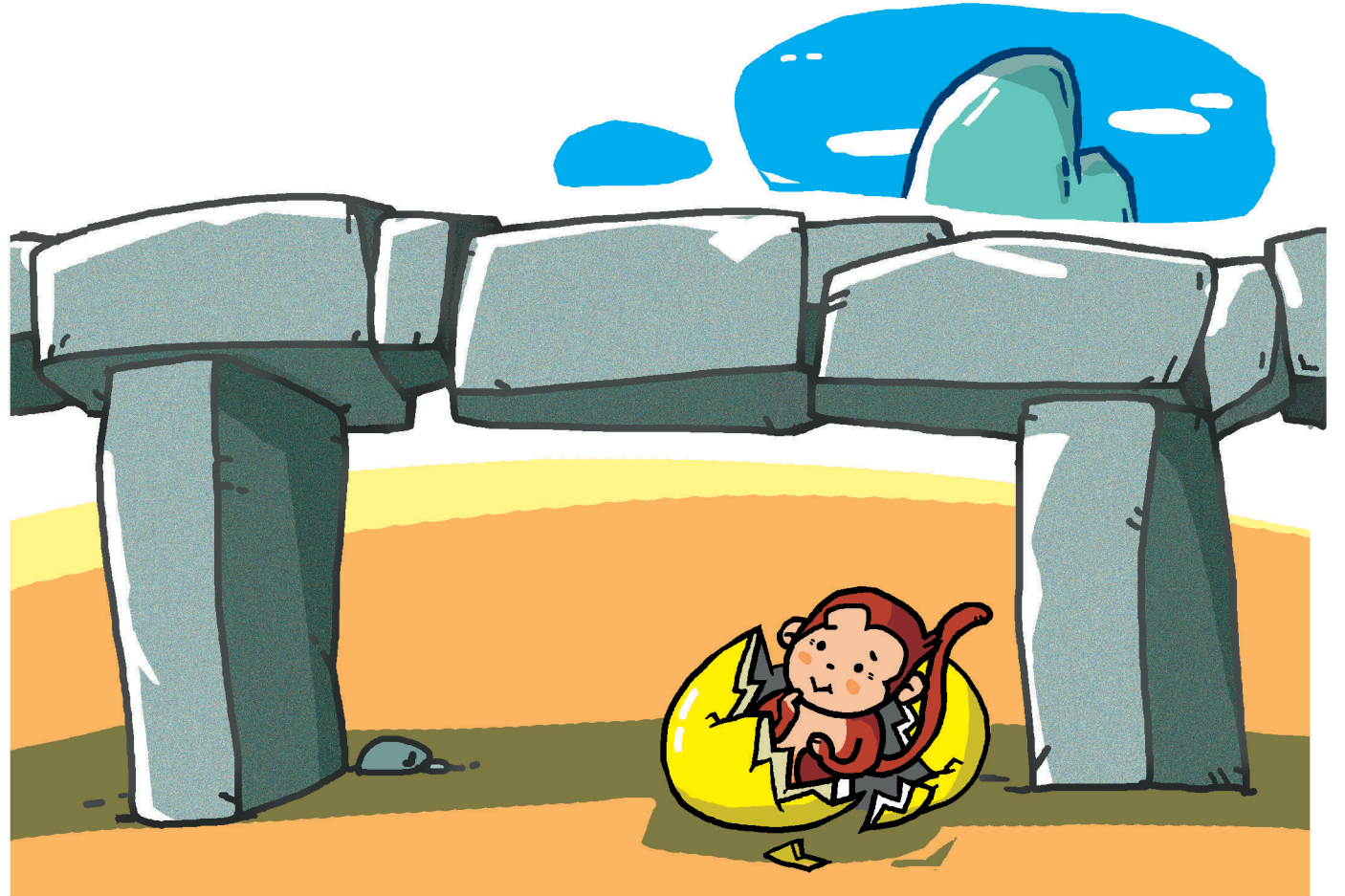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은 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산파가 도와서 태어나도록 하듯이, 이미 가능성으로 지니고 있던 알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거죠. 또 알이란 인간이 본디 가지고 있었는데 잊었던 완전한 알,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중생이 본디 부처라는 말도 같은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구요.

없던 것이 있게 될 수는 없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이전에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몸통이는 엄마와 아빠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의 정신, 또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몸통이가 생기면 정신은 그 몸통이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닐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몸통이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만은 아닌, 무언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윤회설, 영혼불멸설 같은 것이 생겼을 거예요.

또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나요? 우리 본래 이야기, 손오공의 태어남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돌원숭이의 태어남은 참으로 신비하네요. 화괴산 정상의 신령스런 바위가 알을 까고, 그 알에서 나왔다?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넌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하잖아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사람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뿌리를 찾겠다는 열망으로 그 다리 밑에 찾아 가겠다고 때를 써서 어른들이 주워 준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말은 아마도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들인 셈이죠.

그런데 이 손오공은 엄마가 없네요. 아니 있다면 돌맹이가 엄마? “불쌍해라. 돌맹이가 엄마라니”라고 동정하는 것은 우리를 입장에서이고, 이 돌맹이에서 태어난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이 돌원숭이아말로 정말 비보통(非普通) 돌원숭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1년의 날 수와 24절기 등에 맞는 치수를 가진, 우주의 운행을 상징하는 돌맹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돌원숭이는 부모의 정기가 합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정기를 이어받은 그런 원숭이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더 나아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돌원숭이는 앞에서 말한 인간의 몸통이에 깃들여 있는 마음, 그 어디서 온지 모르는 마음 또는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은 불교에 자주 등장하죠. 앞에서 잠깐 마음 원숭이 이야기를 했듯이, 망이지처럼 날뛰는 뜻과 원숭이처럼 나무대는 마음을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 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고, 이제 손오공을 단순한 원숭이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오늘은 좀 심오한 이야기가 많았죠? 저 혼자 심오한 책 해서 듣는 청중 다 떨어질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수준 높은 분들은 계속 이야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갑니다.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가 5,000원(1권)
※간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경전사경 · 사경지 ※

1호 반야심경(한문)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내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본 : 한정본 실제본

2호 금강경(한문) 정가 5,000원(1권)
• 표지 : 레자크지 옻셋 4
• 크 기 : 220mm×310mm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 한지날장
• 크 기 : 636mm×313mm
• 종류 : 한문, 한글

※ 영가옷 · 영가옷 ※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B형-여 정가 1,0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정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 (1000개이상)

종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500원

※크기
• 대 6.5×24cm
• 중 6×22cm
• 소 5.3×18.3cm
한지·인쇄점은 위패(대/중/소) 정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cm
한지·인쇄점은 영가옷(남/여) 정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 (1000개이상)

금강호신경
1000호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